

쿠데타 · 시민학살 도와주는 게 윤리경영?

미얀마 군부정권의 학살과 인권유린에도 손 못 끊는 포스코 기업의 사회책임 강조하는 ESG경영과 반대로 가는 포스코 25일 금속노조 · 시민단체 전주 기금본부에서 기자회견 열고 국민연금 투자기업 포스코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장 표명 요구

개요

- 제목: 포스코 대주주 국민연금은 미얀마 쿠데타세력의 인권침해에 투자하지 말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라, 공개서한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8월 25일(수) 14시 30분
- 장소: 전북 전주 기금본부 앞(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70)
- 공동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모임, 미얀마 민주화 지지 전주연대, 전북민중행동
- 순서: (사회 : 정혜원 금속노조 국제국장)
 - 목념 및 취지발언
 - 국민연금의 인권준수 책임: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세계시민 입장 속에 전주 지역사회가 국민연금에 바램: 이지훈 미얀마민주화지지전주연대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 후 서한 전달
- 문의: 금속노조 정혜원 국제국장 010-2075-0862

○ 책임투자 활성화에 국민연금의 역할 하는 취지로 국민연금법 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따라 환경 · 사회책임 · 기업지배구조 불량기업은 투자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미얀마 군정의 자금줄인 미얀마국영석유가스공사(MOGE)와 거래하며 군부정권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학살과 인권유린을 저지르는 미얀마 군부와 손을 끊지 않고 협력하는 것이 과연 윤리경영이라는 ESG기준에 걸맞은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판단해야 합니다. 금속노조와 미얀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전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기금인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윤리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과 포스코에 대해 적절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모임"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에 결성된 연대기구로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전국의 105개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 "미얀마 민주화지지 전주연대" 는 다음의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전주시기독교연합회, 천주교전주교구, 전북불교총연합회, 원불교전북교구, 미얀마사랑전북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북민중행동), 전북겨레하나(전북평화회의), (사)아시아이주여성센터, 5.18민주항쟁구속부상자동지회전북지회,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차지전북시민연대(시민사회연대회의), 전주YWCA, 재한미얀마전북학생회, 전북총학생회협의회, 국제와이즈맨 전북지구, (사)전주시새마을회, (사)바르게살기운동전주시협의회, 전주청년회의소,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전주YMCA, 평화와통일을 위한 YMCA만인회, (재)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전북작가회의

[기자회견문]

오늘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최된다. 금속노조, 미얀마 민주화 지지 전주 연대, 전북민중행동 그리고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전국의 10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쿠데타 발발 이후 200일을 넘긴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군부의 잔인한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1일 기준 군·경에 의해 숨진 민간인은 1천명을 넘었고, 구금된 사람은 5천780명에 이른다. 이 와중에 코로나 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망자 또한 매일 급증하고 있다. 의료진 및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 19에 감염되어도 병원 입원이 거부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군부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인 미얀마국영석유가스공사(MOGE)와 슈웨 가스전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사회와 임시정부 격인 미얀마국민통합정부(NUG), 국제사회는 군부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며 이들의 경제적 토대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토마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MOGE에 대한 표적 제재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가스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MOGE에 지급하는 것은 무고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군·경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쿠데타 이후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통제하고 있어 가스판매 수익, 배당금, 세금 등을 군부가 유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와 쿠데타 정권 유지,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을 돕는 결과를 낳는다.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포스코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PG)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이 무색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유착해 그 이익을 나누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과 유엔 특별보고관 등이 포스코에게 군부와의 관계 단절을 촉구하고, 가스 대금의 지급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이유이다. 야다나(Yadana)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토탈(Total)이 주주총회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돈줄로 꼽히는 합작 법인에 대해 배당금 지급 중단을 결정하고, 군부의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해봐도 포스코는 지금까지 실효적인 조치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는 최소한 미얀마에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배당금을 비롯한 대금 지급을 유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중대성 평가 실시, ESG 평가결과 조정, 서신 발송과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영향력을 행사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 만큼이나 공공성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 국민연금기금법 제102조 (투자대상 관련한 환경, 사회책임, 기업지부구조의 요소 고려) 책임투자에 관한 사항을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기업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미얀마 쿠데타세력과 연계된 투자기업에 대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 조속한 시일 내에 포스코 투자를 비롯 미얀마 관련 공식적인 논의를 하여 인권존중 책임투자 보장하라!
- 포스코 대주주 국민연금은 미얀마 쿠데타세력의 인권침해에 투자하지 말라!

2021년 8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모임,
미얀마 민주화 지지 전주연대, 전북민중행동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은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전기전자 등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종 전반과 판매, 서비스와 같은 유관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초기업단위 전국단일 산별노동조합입니다. 2001년 2월 8일 설립되어 2020년 현재 전국에 걸쳐 19만 명의 조합원을 품은 한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입니다. 금속노조는 14개 지역지부와 6개 기업지부로 구성되며 사업장의 노동조합 설립여부와 관계 없이 개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속노조 가입 문의는 지역과 업종에 구분 없이 1811-9509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관련 정보는 노조홈페이지 kmwu.kr 또는 기관지 금속노동자 ilabor.org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